



# 오클랜드

##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사목회장: 김경년 베드로 오일공-육구삼-공구이공

평협회장: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 2023년 우리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 (백) 한가위

2023년 9월 24일 (제2050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E-mail: standrewoak@gmail.com

TEL 510-553-9434

홈페이지: [WWW.OAKCC.ORG](http://WWW.OAKCC.ORG)

근무시간: 수(8am~5pm) 토/일(8am~5pm)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성 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영어 미사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 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요엘 예언서 2,22-24,26ㄱㄴㄷ

화답송 시편 67(66),2와 4ㄱ.5ㄷ과 6.7-8(◎ 7)

-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요한 묵시록 14,13-16

복음환호송 시편 126(125),6

-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2,15-21

영성체송 시편 104(103),13-15 참조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 정가 ]	8시	입당 24	봉헌 512	성체 특송	파견 289		
	11시	입당 438	봉헌 214	성체 197, 172	파견 285		
한가위	9월 24일(일)		9월 26일(화)	9월 27일(수)	9월 28일(목)	9월 29일(금)	9월 30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정미경 말가리다	전진영 베로니카	이은자 마트로나	이명련 파트리샤	장희숙 루시아	이명련 파트리샤	허홍숙 세실리아
독서	강신호 요한 이선미 에스터	김상윤 안젤로 황선희 세실리아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이명란 아네스	이명란 아네스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허홍숙 세실리아	이은자 마트로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 9월 순교자성월

- 순교자 성월은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한국 순교 성인.성녀들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 행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매 미사 후 매일미사책 172쪽 순교자성월 기도문.

■ 한가위(추석) 합동위령미사지향 신청

- 오늘 미사는 한가위 미사입니다.  
- 교중미사 후 점심은 성모회에서 전 신자를 위해 준비합니다.  
- 점심식사 후에 구역대항 윗놀이가 있습니다.  
- 한국에서 한가위는 9월 29일(금)입니다.

■ 성모회 야유회

- 일시 : 9/29(금), 오전 9시  
- 장소: Samuel P Taylor Park  
- **9월 29일(금) 미사는 오전 9시에 봉헌됩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당 창립기념일 및 야외미사

- 일시 : 10월 1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 Roberts Regional Recreation Area  
\* 주차비가 \$5이니 되도록 카풀을 이용해 주십시오.  
\* **아침 8시 미사는 본당에서 있습니다.**

■ 요아킴회 나들이

- 일시: 10월 6일(금), 오전 9시  
- 장소: 나파 밸리/갈리스토가  
- 신청: 황금빛위원 이애스더자매님(오일공-구일구-육오육칠)에게 10월 4일(수)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 모임 및 회의

- 꾸리아: 10/7(토) 09:00 교육관 106호  
- 구역장 회의 : 10/8(일) 12:30 교육관 106호  
- 사 목 회 의 : 10/8(일) 1:30 교육관 106호

■ 성경 경시대회

- 일시: 11월 26일(일), 교중미사 후  
- 대회방식: 경시대회 범위는 신약성경  
1) 전 신자 OX 게임  
2) 구역대항: 각 구역에서 대표자 3명 선출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 마리아, 박영자 클라라, 조상희 마리아, 송정현 헬레나, 신정열 올리엠티, 정연중 비오,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홍윤표 베드로, 황정숙 말찌나,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사아론조 발바라, 신공진 요한, 안숙모 아네스, 박인규 시몬

■ 성경 통독

- 9월 집회서 (읽기분량 : 집회서 49,1-51,30)

■ 예비신자 교리 교육 - 마리크리스티나 수녀님

- 매주 주일 10:00~10:45, 교육관 106호  
- 교리를 배우고 싶은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 밥나눔 안내

- 다음 주일(10월 1일)은 첫 주일이고 야외미사 관계로 밥나눔이 없습니다.  
- 문의 : 송성숙아네스자매님(오일공 - 삼철오 - 오일사찰)

■ 북미주 서중부 제 26 차 전체 울뜨레야 대회

- 일시: 10 월 14 일(토) 오전 9:30 - 오후 4:30  
- 장소: 새크라멘토 성 정혜 엘리사벳 한인 성당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문의 및 신청: 본당 울뜨레야 간사

■ 안나 요아킴 라인댄싱 교실

-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오후 1:00~3:00

■ 안나 요아킴 액세스리 만들기 교실 - 10월은 쉽니다.

■ 본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오늘 헤어컷 봉사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70세 이상 어르신 BBQ를 위해 봉사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빈첸시오(9/27) : 신우현
- \* 미카엘/가브리엘/라파엘 대천사 축일(9/29)
- \* 미카엘 : 이종규, 육창우, 구창희, 권창모
- \* 미카엘라 : 신정은, 최애순
- \* 가브리엘라 : 최정안, 정인경
- \* 라파엘 : 김영균, 유홍식
- \* 라파엘라: 김영인, 김경선
- \* 소피아(9/30) : 노용례, 추혜성, 이윤지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부족함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루** 카 복음 19장에는 자캐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세관장인 자캐오가 어느 날 길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마주치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려 했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자 나무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캐오의 마음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캐오는 어떤 마음으로 나무에 올랐을까요? 예수님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마냥 설레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이었을까요?

복음서가 전하는 것처럼 자캐오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세관장, 곧 세리라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로마 제국에 충성하며 동족의 피를 빨아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으로 여겨졌었고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비난받던 이들이었습니다. 자캐오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는지는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로 뻘뻘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도 이런 주위의 시선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캐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한 마음 그리고 한 번쯤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거리에서 마주치게 된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썼고,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자 이를 앞질러 달려가 나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캐오가 왜 나무 위로 올라갔죠? 네,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아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자캐오가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간에, 자신의 키가 작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난 키가 작아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봐야 해. 내겐 그게 필요해' 하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키가 작은 것이 싫고 또 키 작은 것을 굳이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나무 위로 올라가려던 생각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보나. 난 안 봐도 돼' '나무 위에 올라가도 어차피 잘 안 보일 거야.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니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자캐오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속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은 분명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한 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만큼 컸기에, '작은 키라고 놀림 받아도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올라갔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열망에서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세리들은 동족들로부터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비난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눈에 띄게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자캐오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마도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며 수군댔을 것입니다

이런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자캐오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또 자기 스스로도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부족한 모습, 죄스러운 모습,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자캐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욕을 먹으면 먹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얼굴을 꼭 봐야겠다. 내 못난 모습이 다 드러나더라도, 그게 나니까, 나무에 기어올라서라도 예수님을 봐야겠다." 그렇게 자캐오는 나무에 올랐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또 세상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현실에선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죠. 나의 이기심이나 게으름, 스스로 느끼는 열등감과 다른 이에 대한 시기심,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책 그리고 죄스러움까지.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의 대부분은 '나 중심성'에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내가 가진 부족함, 약함을 다 정리하고 치우고 완벽하게 한 후에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스스로를 질책하고, 그래서 더 애를 쓰지만 여전히 안 되고 그래서 또 실망하고. 결국 자꾸만 내 부족함, 약함, 죄스러움을 보게 만드는 신앙의 삶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쉽지 않은 욕구들 다 치워 없애고 내 부족함 채우느라 진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약하고 모자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런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입니다. 키가 작은 내 자신을 싫어만 할 것이 아니라, 키가 작으니까 나무에 오르는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키가 작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신문, 2017년 6월25일]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총
미사참례인원	58 명	172 명	230 명

주일 헌금		교무금	Bishop's Appeal	감사 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황금빛 인생
8시	교중미사							
[교무금] 박정연(7-9), 이범준(9), 김영희(10), 김상윤(9-10), 최명주(9-10), 양일규(7-8), 임석호(8), 손승욱(8), 김세록(7-9), 최윤기(9), 김복희(9-10)			최윤기	김아룡, 김관용, 홍승천	최명주, 최윤기		김영희, 최명주, 김복희	한길자

+ 미사지향

날 짜	연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연	지 향	봉 헌 자
9/24(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9/24(일)	생	장민우	송아네스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생	조에드워드/ 소피아	조분도/ 리디아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이경섭 요셉	권선 클라라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이베로니카 가정	권선 클라라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생	최애순 미카엘라	최애순 미카엘라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생	임계분 레지나	박경림 클라라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스가족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9/26(화)	연	최정자 켄마	이동재 안토니오
	연	박인준 아브라함	박로사가족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민정희 클라라	민제노베파		연	전숙희 데레사	이모니카
	연	옥제병 요한	민제노베파		생	이영기 마테오	염파트리샤
	연	김마르코	가족				
	연	부홍신 마티아	가족	9/27(수)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김옥희 아가다	조모나셀라		생	주정희 마리아	이베로니카
	연	김정탁 요셉	가족		생	이영기 마테오	염파트리샤
	연	김화순 안나	가족				
	연	최순일 요셉	강수산나	9/28(목)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최순일 요셉	가족		생	이영기 마테오	염파트리샤
	연	Terrence Franks	이에스터				
	연	서데레사	정베드로	9/29(금)	연	모든 조상님	김케넷가족
	연	정요셉	정베드로		생	홍경민 테클라	이에스터
	연	김요한	정분다		생	김명식 가브리엘신부님	이에스터
	연	홍모니카	정분다		생	이영기 마테오	염파트리샤
	연	한서연 수산나	김영미 클라라		생	정인경 가브리엘라	정석준 요한
	생	이현경 보나	이에스터	9/30(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이정숙 로사리아	이병열 요셉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생	조한성 요한	김요셉피나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김영순 켄마	신정열 울리에다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생	김성열	신정열 울리에다		연	송성호 아벨	송아네스
	생	임계분 레지나	소화옥 안나				
	생	전옥분 크리스티나	소화옥 안나		생	아론최 송미최 결혼	최대현 다니엘
	생	김옥자 마리아	소화옥 안나		생	아론최 송미최 결혼	최은순 루시아
	생	발바라 부르스 아론조	전데레사		생	이영기 마테오	염파트리샤

<b>대 건 한 의 원</b>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	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Business Consulting</b> ☎ (925)803-0200 Fax (925)803-0204	광고 문의 성당 사무실 510-553-9434	J &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리 ☎(510)236-0550 강 요 한	광고 문의 성당 사무실 510-553-9434
--	--	---------------------------------	--	---------------------------------